

1998년 11월호 - 3월호
농업진흥청

중추전문사육농장의 정착은 신용과 품질보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취재/함경숙 기자

중 추사육전문농장의 정착이 필요하다.

한국 채란 양계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추산업의 자리매김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중추산업의 발전은 곧 양계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산란계 분야에서 중추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중추업이 등장하기 시작, 급속도로 발전·확장되어 왔다.

이는 닭 일생 중의 산란성적은 병아리 육추·육성의 성공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둘 때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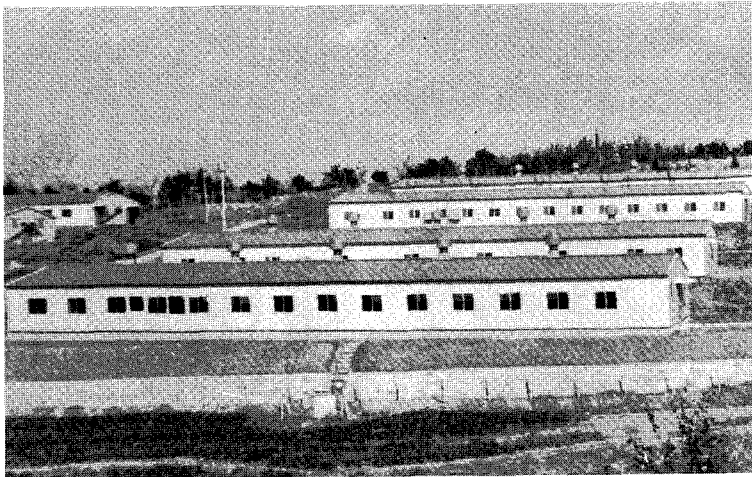
일생중 가장 중요한 육성기를 중추농장에서 관리하지만 산란계 농장에서 그 산란율이 낮아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중추전문 사육농장에서 중추를 구입, 사육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힘입어 전국에는 중추전문 사육농장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불량중추 분양으로 소비자인 산란농가로부터 외면당하던 품종은 점차 사라지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우수한 중추분양으로 이젠 제자리를 찾고 있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과거처럼 계란가격이 좋으면 무조건 총동구매하던 산란농가에서도 적정 사육규모를 설정, 계획입추가 정착되고 있어 불량중



△ 중추전문농장이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계화, 자동화 시설이 요구된다.

추 근절의 기본대책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는 아직도 자가사육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육성시킨 중추가 중추전문농장에서 구입한 중추보다 산란성적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 농장의 경우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중추전문농장에서 중추를 구입, 사육해 본 경험이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품종이나 사육일령을 속여 판매하거나 2종 이상의 품종을 혼합하여 동일 품종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 또는 사육일령 단축을 위해 육추사료, 중추사료를 제대로 급여하지 않고 육계사료를 급여, 체중만 늘려서 파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확한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완벽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중추를 분양하는 등 중추전문사육농장의 정착을 저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어 분양후 산란계 농장과 불협화음이 지금까지 중추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추를 선택, 구입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 중추를 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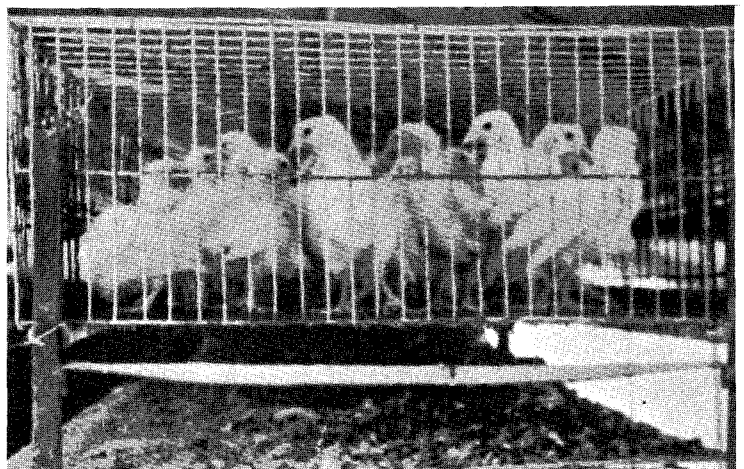
꾸준히 거래해 오던 중추농장을 선정, 병아리 품종을 미리 선택하여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할 경우 자가육추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양가 입장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중추전문농장이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계군이 균일한 면이 큰 장점이지만 약추의 비율이 자가육추시보다 높다는 점과 산란피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산란율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한 디비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추전문농장에서 중추를 구입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량중추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는 1~2개월전에 중추입추 예정일을 책정, 중추농장을 직접 방문하



△ 중추사육업자들이 우량중추만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건강한 중추사육이 정착될 때 국내 산란계 산업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된다는 각오가 시급하다.

여 분양계약을 완료해야만 원하는 제 날짜에 우량한 중추를 분양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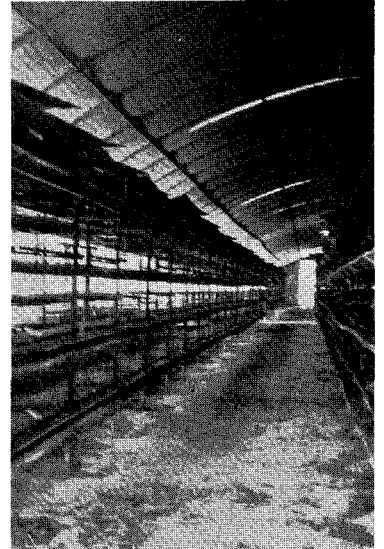
특히 계약후에라도 수시로, 또는 늦어도 분양예정일 7~10일 전에는 중추농장을 방문, 계군상태를 점검하고 분양받은 후에는 중추농장의 백신프로그램과 품종회사가 제공하는 사양관리 지침서의 백신접종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 축산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초생추의 육성척도를 과거의 체중 기준에서 골격위주로 전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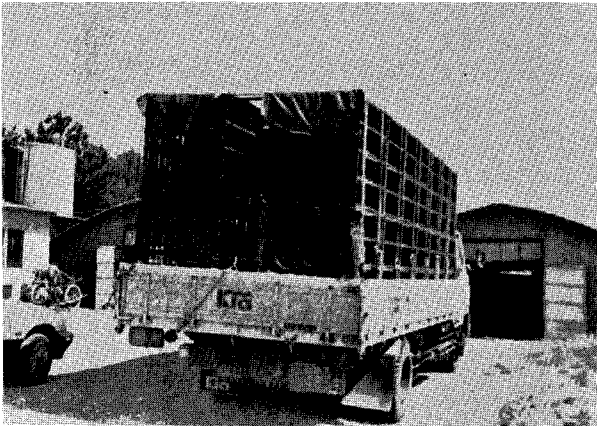
중·대추 분양을 골격 완숙기간인 14주령 전후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중추사육농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산란계 육성농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몇년째 계란가격이 안정을 보여 오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중추전문 사육업 정착의 최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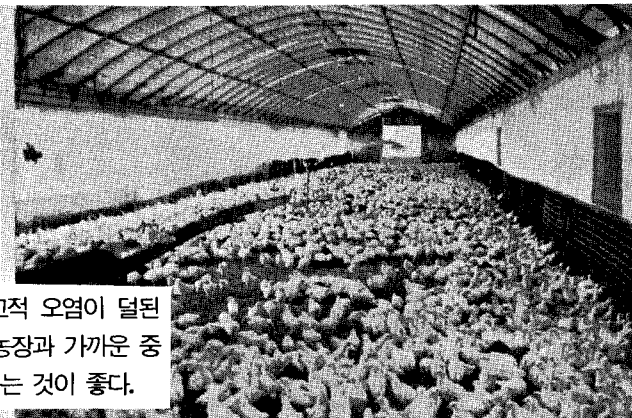
현재 전국에는 약 50여개의 중추전문농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생산자인 중추사육업자나 소비자인 산란계 농장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품질



△ 중추를 분양한 육추시는 깨끗이 청소, 소독한후 일정기간을 비워두어야 한다.



◁ 중추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차량의 도입은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1차적인 예방이 된다.



△ 주위환경이 비교적 오염이 덜된 청정지역 중 자기농장과 가까운 중추농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의 중추유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거래방법에서 볼 때 수요자측에서는 무조건 값싼 중추만 구입하려던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좋은 육성계 구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중추육성농장에서도 철저한 사양관리와 정확한 백신접종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각각 기본원칙을 세우고 생산, 분양하는 제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는 동시에 공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추사육업도 등록제가 실시되었으니 정식으로 등록하고 중추업 협의회를 구성, 제값받기를 통한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도 관심을 집중시켜 중추업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재**